

【한자와 나오키 제06화】

<https://cafe.daum.net/jpcokr/KpLx/6346>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01:01 かつて 5億の融資失敗の 汚名を着せられ

>> 과거 5억엔 대출 실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

きせる [着せる·著せる·被せる]

1. (옷 따위를) 입히다. 2. (책임 등을) 남에게 전가하다; 뒤어씌우다. 3. [고어] 치다; 때리다.

비교: 이시코와 하네오 –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? – 제07화

14:19 無実の人が罪を着せられた時に 冤罪にならないよう
に そうなってるんです

>> **죄가 없는** 사람이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억울한 누명이
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





01:55 お前に**ご執心**の大和田常務が ぜひ会食したいと言ってきてる

>> 너한테 꽃힌 오오와다 상무가 꼭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

しゅうしん [執心] 집심, 집착심, 미련.

메모: 특정 대상(사람, 사물)에 마음을 뺏겨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 執心으로만 쓰면 '집착'의 의미로, 'ご執心'이라 쓰면 윗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 됩니다.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02:15 半沢の心の底には 黒い憎悪の火種がくすぶっていた

>> 한자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검은 증오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

ひだね [火種] 불씨.

くすぶる [燻る]

1. (불이 잘 타지 않고) 연기만 내다. 2. 그을다. 3. 감정이 남아 있다, 맺히다, 풀리지 않다.
4. (제자리에서) 맴돌다; 제자리걸음하다. 5. 틀어박히다; 죽치다.

비교: 악녀 ~일하는 것이 멎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?~ 제02화

47:16 いつまで くすぶってるつもり?

>> 언제까지 쳐박혀 있을 생각이야? / 언제까지 꿈하고 있을 거야?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03:15 そうなれば 銀行の信用は**失墜**し 経営基盤そのものが 揺るぎ**かねない**のだった

>> 그렇게 되면 은행의 신뢰는 추락하고 경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12:37 経営の根幹を揺るがす事態になり**かねない**のだった

>> 경영의 근간을 뒤흔들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

しっつい [失墜] 1. 실추 2. 낭비

～かねる：他の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用いる。

㉞…しようとして、できない。…することがむずかしい。「納得しー・ねる」「何とも言いー・ねる」

㉟（「…かねない」などの形で）…するかもしれない。…しそうだ。「悪口も言い出しー・ねない」

참고: 한자와 나오키 제02화

09:38 あの騒ぎは 何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 今度は支店長が 責任を問われかねないからな

>> 그 소동은 뭐였냐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지점장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





03:23 問題は **引当金** ですね

>> 문제는 **충당금**이네요

ひきあてきん [引当金] 충당금

引当金（ひきあてきん）とは、将来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特定の費用や損失に備えて、あらかじめ当期の費用として決算書に計上しておく見積もり金額。お金の実際の支払いは「未来」ですが、その原因が「当期」にある場合、発生主義のルールに従って今から準備（引当て）をしておく必要がある。



03:52 今こそ 我々が一枚岩となって この困難を 乗り切ろうじゃありませんか？

>>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

いちまいいわ [一枚岩] 1. 통반석, 너럭바위. 2. 조직·단결의 굳건함.

메모: 조직이나 그룹 멤버 전원이, 의견의 대립이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,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강하게 뭉치는 상태를 뜻합니다.





05:00今夜はちょっと ヤボ用がある

>> 오늘 밤은 좀 볼일이 있어

야ぼう [야보用·野暮用·夜暮用] (취미나 놀이가 아닌) 사무적이거나 일상적인 일.

「ちょっとした用事」や「人には言えない日常的な雑用」を意味する言葉

- 用件をぼかしたい時：具体的な内容（買い物、役所の手続き、私用など）を相手に伝える必要がない時に便利。
- 誘いを断る時：角を立てずに「先約や私用がある」と伝えられる。
- 目上の人にはNG：少しでも表現のため、ビジネスでの上司や取引先には「私用」や「急用」を使う。



やぼ [野暮] 멋이[풍류가] 없음; 촌스러움; 세상 물정에 어두움; 또, 그런 사람; 썩; 촌뜨기.

참고: 악녀 ~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?~ 제07화

27:08 すいません 田中 やぼなことを…。

>>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는 소리를….



やぼったい [野暮ったい] [속어] 촌스럽다; 세련되지 않다.

참고: 합리적으로 말도 안 돼 ~탐정 카미즈루 료코의 해명~ 제09화

42:06 昔は もっと やぼったかったのに。

>> 옛날에는 좀 더 촌스러웠는데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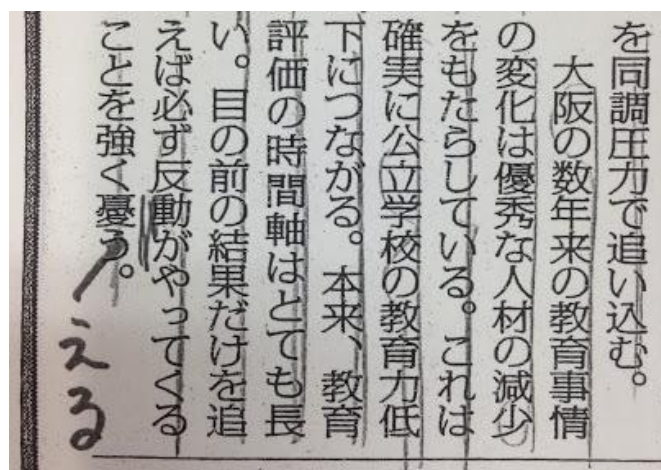
05:35 私は正直 憂いている

>> 나는 솔직히 걱정이야

うれう [憂う·愁う·患う] '憂える'의 문어(文語)형-

うれ-える [憂える·患える] 걱정하다; 근심하다; 마음을 태우다; 한탄하며 호소하다.

うれい [憂い·愁い·患い] 1. 근심 2. 슬픔 3. 기증





06:02 頭取の椅子に中野渡さんが座っている限り 我々が 日の目を見ることはないだろう

>> 은행장 자리에 나카노 와타리 씨가 앉아 있는 한 우리가 빛을 볼 일은 없는 거지

ひのめをみる [日の目を見る]

1. 햇빛을 보다. 2. 세상에 알려지다. 3. 세상에 나오다.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06:27 やはり酒は この鳶姫にかぎるね

>> 역시 술은 이 토비히메가 최고지

かぎる [限る]

2. ('...は...に限る'의 꼴로) ...하는 것이 제일이다; ...밖에 없다.

참고: 핫 스팟 제06화

07:25 迷った時は これに限る

>> 망설일 땐 이게 최고다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10:05 そうなれば 我が行は破綻をきたし 頭取のクビがとぶ

>> 그렇게 되면 우리 은행은 파탄나고 은행장 목이 날아가

きた-す [来す] 오게 하다; 초래하다; 일으키다.

참고 : 이시코와 하네오 -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? - 제07화

01:24 もちろん これまでどおり 仕事に支障をきたすまねは 絶対に...

>> 물론 지금까지처럼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로...





10:15 それまでに 120億の補填と ホテルの再建案を検討してくれ

>> 그때까지 120억엔 보전과 호텔 재건 계획을 검토해 주게

ほてん [補填]

보전,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우는 것. (=填補)

骨補填材の安全性と種類：3つの安心素材

自分の骨 (自家骨)	人工の材料 (人工骨)	動物由来の材料 (他種骨)
		
最も安全・ 拒絶反応なし	骨と同じ成分で作成・ 感染リスクなし	徹底した滅菌・ タンパク質除去で安全
✓ 安心	✓ 安全	✓ 承認済み



13:04 半沢直樹の両肩には 東京中央銀行の未来が 重くのしかかっていた

>> 한자와 나오키의 양쪽 어깨에는 도쿄중앙은행의 미래가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

のしかかる [押し掛かる]

1. 덮치다
2.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듯한 태도로 나오다
3. 덮쳐 누르듯 하다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15:31 そういう隙を突いて 資金運用で **ひと旗揚げ**しようとしたのが 羽根専務だ

>> 그런 허점을 파고들어 자금 운용으로 한 번 크게 성과를 내려 했던 게 하네 전무야

ひとはた【一旗】揚(あ)げる

新しく事業などを起こす。意欲をもって新しい運命をきりひらく。

참고: 한자와 나오키 제04화

01:12 俺は必ず **もう一旗**揚げるつもりだ

>> 나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기할 생각이야





15:38 利益を上げれば 湯浅一族を押しつけて 自分が社長になれるとでも たくらんだんだな

>> 수익만 올리면 유아사 일가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장이 될 수 있다고 꾸민 거지

おしのける [押しつける·押し退ける]

밀어젖히다, 밀어내다.





16:37 通り一遍倒のことしか 教えてもらえなくてね

>> 표면적인 것밖에 가르쳐주질 않아서 말이야

とおりいっぺん [通り一ぺん·通り一遍] 1. 지나는 길에 들름. 2. 표면상, 형식뿐인 모양. (=皮相)

彼は通り一遍の謝罪しかしなかった。

いっぺんとう [一辺倒] 일변도, 한쪽으로만 기움.

彼は仕事一辺倒の生活を送っている。

메모: 대사에서 나온 通り一遍倒는 、 通り一遍과 一辺倒의 두 단어를 실수로 합쳐버린 틀린 표현입니다.





17:08 支店長の貝瀬さんは 見栄とプライドの塊みたいな御仁だからな

>> 카이세 지점장은 허세와 자존심 덩어리 같은 사람이니까

ごじん [ご仁·御仁]

노인어 사람, 분. (=お方)

메모 1: 한국어로는 경우에 따라 '양반' 정도로 번역하면 좋습니다.

메모 2: "사람"을 뜻하는 한자인 人 대신 仁을 쓰는 이유는 중국 고전에서 仁이 '어진 사람', '덕 있는 인물'을 연상시키는 글자였기 때문이기에,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자의 문화적 뉘앙스를 받아들여 사람을 완곡하고 품위 있게 지칭하는 표기로 御仁이 정착되었다 합니다.





21:00 まあ どうにかこうに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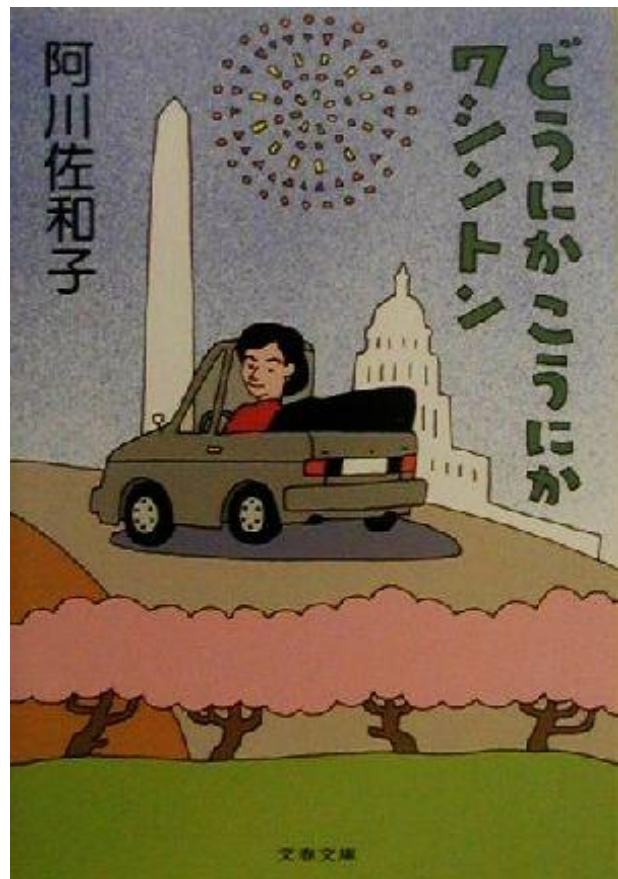
>> 뭐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

どうにかこうにか

'どうにか'를 강조한 말.

どうにか

1. 겨우겨우, 가까스로, 그런대로, 그럭저럭.
(=かろうじて, やつとのこと)
2. 어떻게(든). (=なんとか)





21:44 今月末までに 融資をしていただかないと うちの立ち行かなくなってしまうす

>> 이번 달 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

たちゆく [立(ち)行く]

1. 그럭저럭 되어(나)가다.
2. (장사가) 재산이 맞다.
3. (살림을) 꾸려 나갈 수 있다, 생활을 할 수 있다.





(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^^)

23:55 とにかく つてを使って探しまくれ

>> 아무튼 인맥을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찾아봐

つて [伝·伝手] 1. 연고; 연줄 2. 인편; 편 3. ...하는 편; 계제

참고: VIVANT 제09화

55:27 いや、あらゆるツテを使ったが何も

>> 아니, 이런 저런 연줄
을 써 봤지만 아무것도





25:10 週1 二郎は欠かせないからね / 大ダブル野菜カラカラめか

>> 일주일에 한 번 지로는 꼭 먹어야 하거든 / 곱빼기에 고기 두 배 야채 추가 소스 진하게인가

메모: ラーメン二郎는 일본에서 유명한 라면가게의 이름입니다. 주문 방식이 독특해서 초보자들은 주문하는 것도 어려운 가게입니다.

大ダブル野菜カラカラ

大(だい) : 대(大) 사이즈 라멘

ダブル: チャーシューダブル (차슈 더블)를 의미합니다.

野菜: 야채(숙주·양배추) 추가

カラカラ: カラメ+カラメ, 양념(간장 타레)을 매우 많이 추가





29:01 銀行としての筋を曲げ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

>> 은행으로서의 원칙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

すじ [筋] 1. 줄기 2. 가닥

すじがたつ [筋が立つ] 이치에 맞다.

すじがちがう [筋が違う] 이치[도리]에 어긋나다; 엉뚱하다.

すじをとおす [筋を通す] 이치에 닿게 하다; 절차에 따라 행하다.

すじをまげる [筋を曲げる] 신념을 굽히다